

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		보도자료	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		배포 일시	2012. 7. 16(월) 총9매(본문3, 붙임6)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 자	과장 김준석, 사무관 정송이, 주무관 손상희 ☎ (02)2110-8514, 8517	
보도일시		2012년 7월 1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제4차 한·중·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성황리에 마쳐

3국간 교통물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성명서 및 12개 실천과제 채택

- 7월 16일(월) 오전 부산 BEXCO에서는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.
 - 동 회의에는 한국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, 중국의 리성린(李盛霖) 교통운수부 부장, 일본의 켄 오쿠다(奥田 建) 국토교통성 부대신 등을 비롯한 한중일 교통물류 관련 정부대표 48명이 참가하였다.
-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대표는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하여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12개 실천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,
 - 한중일 3국은 지난 2010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이후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우선, 한중 간 상호주행 중인 피견인 트레일러는 상호주행*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트랙터까지 상호주행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.

* 2010년 인천항~위해항간 상호주행을 시작하여 2012년 6월말 현재 한국 3개항(인천, 평택, 군산)과 중국 6개항(위해, 청도, 일조, 용안, 석도, 연태) 간 259대의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 주행

*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은 상하역 단계 축소를 통해 화물운송 시간을 4시간 단축시키고 TEU 당 50달러의 비용을 절감

- 특히, 한일 간 올 하반기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시범사업*을 위한 ROD(Record of Discussion)를 체결하여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.

* 피견인 트레일러를 이용,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(26개)로 부터 자동차 부품을 순회·수집(천일정기화물, 일본통운)하여 일본(닛산)으로 수입하는 모델

- 그리고,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3국간 효과적인 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(NEAL-NET)의 적용항만*과 참여기업들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,

- 장기적으로 물류정보 공유범위를 현재의 해상에서 도로, 철도, 항공 등으로 넓히고, 삼국의 대중교통과 물류정보도 포함하기로 하였다.

* 현재는 부산항(한국), 닝보·저우산 항(중국), 도쿄·요코하마 항(일본)의 선박 입출항 정보를 제공 중

- 한편, 한중일 3국은 일회용 팔레트 사용*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활용 팔레트 관세 면제와 통관절차에 관한 공동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.

- 향후 본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현재 0.8% 수준인 3국간 재활용 팔레트 사용률이 30%만 높아져도 연간 4,624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(한국해양수산개발원)된다.

* 상품의 상하역을 편리하게 위한 받침장치인 팔레트는 통상 수출 상품과 함께 이동하나, 수입국에서 상품이 하역되고 남은 팔레트를 수출국으로 재반입 하려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출업체는 1회용 팔레트 선호

-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공동노력으로 한중일 물류기업들이 상대국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“물류기업 투자 가이드 북”을 작성하여 향후 3국의 물류기업이 상호 투자 및 진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-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한국의 제안으로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최초로 열렸으며, 2차는 2008년 일본, 3차는 2010년 중국이 개최한 후, 금번 4차 회의는 순서에 따라 한국이 다시 주최하게 되었다.
- 200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3국간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, 효율적이고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 구축 등 동북아 물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12개 실천과제를 채택하였다.
- 2008년 5월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는 “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”, “환경친화적 물류 구축”, “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”라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, 논의 의제를 해상운송 중심에서 도로, 철도, 항공 등 물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교통물류장관회의의 틀을 완성하였다.
- 그리고 2010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3차 회의부터는 육상·해상 복합운송 시범사업과 RFID를 활용한 화물위치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등 실질적인 공동협력사업을 발굴·실천해 오고 있다.
- 한편, 한중일 3국 교통물류장관은 4차 회의를 마친 후 “미래 지향적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방안”에 대한 국제물류 세미나에 참여하여 3국의 물류관련 민간기업, 연구기관 등과 의견을 교환하였다.

- 붙임 : 1.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요
 2. 공동성명서(안) 주요내용
 3. 부속서(안) 주요내용
 4.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개요
 5. 팔레트와 재활용 팔레트 이용 프로세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정송이 사무관(☎ 02-2110-8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회의개요

- 회의명 :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
- 일시/장소 : 2012. 7. 15(일)~16(월)/ 부산 BEXCO
- 주요일정(안)(부대행사 포함)

❖ 2012. 7.15(일)

- 14:00-17:00 국장급 사전 준비회의
- 18:00-20:00 환영만찬(국토해양부장관 주최)

❖ 2012. 7.16(월)

- 09:00-10:50 제4차 한·중·일 물류장관회의
- 11:00-11:40 공동성명 조인식 및 기자회견
- 12:15-13:30 오찬(국토해양부장관 주최)
- 14:00-17:30 국제 물류세미나 / 한·일, 한·중 양자회담
- 12:15-13:30 만찬(부산시장 주최)

❖ 2012. 7.17(화)

- 09:00-14:00 부산 신항 현지시찰

□ 각 국 대표단

- 한국 : 국토해양부 장관(수석), 물류정책관, 종합교통정책관 등 **11명**
- 중국 : 교통운수부 부장(리성린), 국제합작사 사장 등 **23명**
- 일본 : 국토교통성 부대신(켄 오쿠다), 정책기획국 국장 등 **14명**

□ 물류협력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

○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

-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활성화, NEAL-NET을 통한 물류정보 교환 확대, 재활용 팔레트 시스템 구축, 물류장비 표준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
- 삼국 물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'물류기업 투자 가이드북' 작성

○ 환경 친화적 물류 구축

- 삼국 간 녹색물류 협력을 강화하고, 3자 물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상호 협력

○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

- 물류보안 관련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물류보안 시스템에 대한 삼국 간 이해 증진

□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

- 아세안+한·중·일 교통물류 장관회의(10+3) 체제 설립을 모색하고 협력의 범위를 러시아와 유럽 등으로까지 확대 추진

□ 공동연구의 체계화·정례화

- 삼국 간 공동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'삼국 간 물류공동 연구 수행지침' 마련

①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, 해외 진출시 문제점 개선

- 삼국에서 재활용 팔레트 무관세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
- 삼국 물류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'물류기업 투자 가이드북' 발간

② 「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」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

- (한·중) 기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복합운송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, 트랙터까지 포함된 트레일러 샤시 운송을 위한 공동 연구실시
- (한·일)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
- (중·일) 복합운송 수요 및 시범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및 협력
- (한·중·일) 삼국 간 복합운송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 수행

③ 삼국 물류 정보 네트워크 구축

- NEAL-Net이 제공하는 물류정보 공유 범위를 선박 입출항 정보에서 도로, 철도 및 항공 운송 정보까지 확대

④ 동북아 해상운송 및 물류정보 교환

- 선박 전자 공동검사,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등에 대한 정책, 관리 기법 및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백서 발간

⑤ 물류장비 표준화 추진

- 민간이 제정한 물류장비 표준에 대해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크기, 재질 및 강도가 표준화된 팔레트 사용을 촉진

⑥ 항만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

-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 준비를 위한 과장급회의('12.5, 서울) 개최
- 제13차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('12.10, 일본 오타루)에서는 각국의 항만 행정을 주제로 정보 교환 예정

⑦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 조화 방안 모색

- 삼국 간 물류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 세미나와 공동 교육프로그램 제안

⑧ 상호 교류·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

- 삼국 공동연구를 체계화, 정례화하기 위한 '삼국간 물류공동연구 수행지침' 마련

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등 협력채널 논의사항 공유

- 제11차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연구주제(항만 사용료, 해상육상 복합운송, 마리나 네트워크)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13차 항만국장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

⑩ 효율적이고 환경부하 적은 물류체계 구축

- 선박의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에코 쉬핑 시범사업 공동 실시

⑪ 3PL사업 촉진 여건 조성

- 3PL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강화

⑫ ASEAN과 협력가능성 모색

- 아시아 전역의 물류 체계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아세안 +한·중·일 교통물류장관회의(10+3) 체제 설립의 가능성을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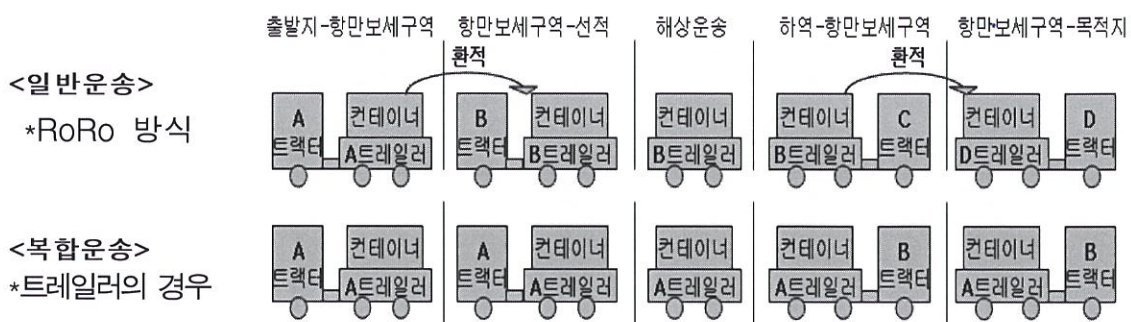
□ **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**

-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
 - '10.9.7 체결, '10.11.25 발효

□ **주요 내용**

- '한중 복합운송'의 단계적 실시 추진(협정 제2조)
 - 1단계 피견인 트레일러 ⇒ 2단계 트랙터+트레일러
- 상대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 조건(협정 제5조), 카보타지 금지(협정 제7조), 보험가입(협정 제8조), 관세담보(협정 제9조)
- 양국 운송차량은 협정 및 의정서 규정과 상대국 법령,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(협정 제10조)
- 협정 및 관련의정서의 집행 상황 평가 및 상호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협력 위원회 설립·운영(협정 제14조)
 - 적용 항구, 운행 구역, 연간 운행허가증 발급 건수 등 협의

□ **복합운송 방식**



□ 팔레트(Pallet), 재활용 팔레트(Returnable Pallet) 개념

- 화물의 상하역, 집하, 수송을 위한 기초판으로 사용되며 트럭, 지게차 등 관련 장비에 적합하도록 제작한 견고한 수평대
- 재활용 팔레트는 팔레트 중 재사용이 가능한 팔레트를 지칭



□ 재활용 팔레트 이용 프로세스

재활용 팔레트 이용 프로세스

